

정남진 장흥 특산물 통합 봄축제 '삐걱'

면단위 축제 묶어 4월 개최 계획 귀족호도축제 장평면 주민들 반대 1년 연기 방안 등 놓고 조율 중

장흥군이 그동안 면단위 축제를 한데 모아 올 봄에 개최하려던 (가칭) '정남진 장흥명품 특산물 봄축제'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4월 26일~28일(3일간)까지 장흥읍 탐진강변 일원에서 군비 5억원을 들여 '키조개, 명품귀족호도, 표고버섯축제'를 통합하고, 장흥군의 고유전통 문화행사인 보림문화제까지 함께 아우르는 정남진 장흥명품 특산물축제를 열 계획이었다.

민선 8기들어 안양면 수문항에서 열리는 키조개 축제(21회), 장평면의 귀족호도축제(11회), 유치면의 표고버섯축제(9회) 모두가 동네축제로 전라

돼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자 분산된 축제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효과를 올리자며 김성 군수 제안으로 통합축제 계획이 마련됐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특산물 축제 개발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데 이어 지난 11월에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마치고 올 1월 중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에 축제행사대행사를 선정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정남진 장흥 특산물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제는 '2024cm 무산김밥 만들기, 대표로' 장흥삼합 구이터 웰니스 장흥특산물 전시관, 공연으로는 '어머니 품 가요제, 토요일 밤 버스킹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키조개 보물찾기, 표고버섯 탐 샅기, 김말이 튀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마당에 최근 귀족호도축제를 주관하는 장평면 번영회에서 김성 장흥군수와의 면담에서

"귀족호도축제는 11회를 여는 동안 성황을 떠나 독자적인 상품개발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대부분 농가에 식재한 식용호도가 본격적으로 출하돼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귀족호도는 통합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2일 김성 군수 주재로 전 실과소장·읍면장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통합축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지는 의견이 나오자 군당국은 시정을 놓고 올해부터 할 것인지 내년부터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추상이 장흥군 문화관광실장은 "올해 장흥군이 문화·예술·관광부흥의 해 상징성을 감안 일부 반대하는 축제주민들을 설득시켜 가능한 통합축제를 열어 장흥이 명실상부한 '어머니가 품은 웰니스 장흥 특산물 봄축제'로 거듭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운주사 문화관으로 영화 여행 떠나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상영

전북전망의 신비를 간직한 화순 운주사 옆 운주사문화관(사진)에서 '오후 두 시의 영화 여행'을 떠나는 영화사랑방을 운영한다.

화순군은 운주사문화관이 오는 31일 황인호 감독의 '데시벨'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사랑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 28일 '기적', 3월 27일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4월 24일 '자백' 등의 상영 순이다.

운주사문화관 영상실을 이용한 '영화사랑방'은 코미디, 액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상영한다.

또 '상시 영화사랑방'을 통해 10명 이상의 단

체가 7일 전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요일에 단독상영도 가능하다.

'영화사랑방'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되는 영화는 저작권법에 따라 DVD 출시 후 6개월 이상 된 작품에 한정하며 영화 목록은 운주사문화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운주사문화관은 '행복한 여가와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미디어아트를 비롯해 조소, 평면,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3월부터는 미술 아카데미와 사진강좌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외국인 관광객 투어... 일본 관광단 김치·청자 체험

전남관광재단 등과 협력 25명 유치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올해 첫 외국인 관광객 투어를 최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작년부터 국내관광 시장을 넘어선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전남관광재단과의 업무 협약, 인바운드 여행사 교류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선제적으로 지난 22일 일본인 관광객 25명을 유치했다.

이번 일본인 관광객 강진 방문은 전남도, 전남관광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일본 인바운드 여행 전문업체 (주)남해관광 여행사와 전라남도 명예홍보대사 신카이 미야코 교수가 주관하고 직접 관광객을 모객해 진행했다.

이번 일본인 관광객들의 강진군 답사는 전남도 식문화 체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려청자 박물관 관람, 하나의 정원에서 김장과 동백꽃 식초 만들기, 한정식 등을 체험하고 지난 24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인솔한 전라남도 명예홍보대사 신카이 미야코 교수는 "강진에서의 다양한



전남도 식문화 체험을 위해 강진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하나의 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험이 인상 깊었고, 특히 김장 체험과 동백꽃 식초 만들기는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2월에 다시 일본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강진을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석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전남관광재단, 인바운드 여행사들과의 긴밀한 협조, 마케팅,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 동화면 청년회 어르신 이미용 봉사

장성 동화면 청년회가 조산마을 경로당에서 새해 첫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동화면 청년회는 재능기부로 참여한 이미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염색과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부를 살폈다. <사진> 임찬봉 동화면 청년회장은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며 "새해에도 회원들

과 함께 주변의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정숙 동화면장은 "봉사에 참여해 주신 이미용 전문가들과 동화면 청년회에 감사하다"면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화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국가사적 나주목 관아 '동헌' 복원한다

58억원 투입 2028년 완료

나주시가 국가사적 제483호 나주목(羅州牧) 관아의 핵심 건물이었던 동헌(東軒) 복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나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나주읍성 내 금성관(객사), 목사 내아(나주목사 사택), 향청(지방수령자문·보좌기구), 향교(조선시대 교육기관) 등을 아우르는 지방행정기관 건축물이다.

나주시는 지방 공평이자 중앙 관리, 외국 사신이 묵었던 객사(客舍)인 금성관(鎭城館)을 2002년에 복원한 데 이어 서익헌(2005년), 동익헌(2007년)과 연못 복원(2018년)을 완료했다.

지방수령을 자문, 보좌하는 자치 기구 역할을 했던 나주목 향청도 지난해 복원에 현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원이 추진되는 동헌은 목사내아, 정수루를 포함해 나주목 관아를 구성하는 핵심 건축물 중 한

곳으로 목사가 공무를 보던 장소로 '제금헌(製錦軒)'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고려와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나주목의 위상과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1만6000여㎡에 달하는 동헌터 발굴조사는 올해 금남도 행정복지센터를 철거·이전하고 정수루 임시 주차장 등을 철거한 뒤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복원을 마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